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	
		배포일자 2022년 1월 23일(일) 총 2매				
담당 부서	해양환경과	담당자	• 해양환경정책팀장 홍성훈 ☎440-7901 • 담당자 박준수 ☎440-7903			
사진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 참고자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			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‘환경특별시 인천’ , 전국 최초 해양환경 부서 신설

- 바다쓰레기로 해양환경 위협 ... 해양환경 보호 절실해 -
- 갯벌생태계 복원, 해양쓰레기 정화, 생태관광활성화 선도적 역할 할 것 -

인천광역시는 해양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고 밝혔다.

인천시는 세계 5대 갯벌 709.6㎢(전국 2,487㎢ 대비 28.5%), 해안선 1,079km(전국 14,962km 대비 7.3%), 섬 168개(유인 40, 무인 128), 해양보호구역 및 랍사르습지, 저어새 번식지, 물범 서식처 등 해양생물자원이 풍부한 수도권 지역의 해양도시이다.

그럼에도 한강하구에서 떠내려 오는 쓰레기와 서해바다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로 해양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어 해양환경 보호 및 관리체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.

이에 인천시는 해양항공국 소속 해양환경과를 신설하여 해양환경정책, 해양환경정화, 해양생태지질 등 3개 팀으로 운영한다.

주요 업무로는 해양보호구역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관리, 갯벌생태계 복원, 특정도서 관리, 해양환경 국제교류 협력증진 및 전략과제 발굴, 해양쓰레기 정화, 해양쓰레기 수거·보관·처리시설 설치, 해양환경정화선 운영, 지질공원 및 갯벌 등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인증 및 등재, 생태관광활성화 구축 등이다.

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“해양환경 분야 전담 부서가 전국 최초로 신설된 만큼 환경특별시 인천에 걸 맞는 해양도시로서 해양환경보호 및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.” 고 말했다.

<첨부> 관련사진

첨부

관련사진



해양생태계(갯벌)



해양 쓰레기 수거